

으랏차차,
군산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을 뚫고 새싹이 힘차게 돋어나듯,
군산도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군산새만금신항 One-Port를 향한
군산의 내일, 그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봄바람을 타고 희망이 움트는 4월,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외쳐봅시다.

으랏차차! 군산!



2025년 4월호

Contents

04	기 획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06	군산은 지금	현장을 가다: 군산새만금신항
08	군산의 섬(島)	고군산군도의 방파제, 방축도
10	군산의 인(人)	(주)지방 조권능대표 군산 명장 : 흥윤베이커리
13	군산의 미(味)	봄을 맛보다, 봄철 식재료 : 갑오징어
14	군산의 사(史)	군산의 조개무덤
16	군산의 가(街)	군산영화타운
18	오늘 어디갈까?	이제는 걸어볼까? 황톳길 맨발걷기
20	생활정보특특 / 군산영상	생활정보, 솟품 등 소개
21	시민리포터	시민리포터 및 어린이(청소년)리포터
22	도서관 소식	따스한 봄 햇살과 읽기좋은 책
23	이달의 건강 소식	봄의불청객, 꽃가루알레르기
24	우리동네 이야기	지금 우리 동네는?
25	문화산책	내 교향곡은 묘비, 쇼스타코비치 - 서거 50주년 기념 공연 관련 소회
26	의정	의회 주요 소식
28	시정알림	시정소식 및 알림
30	문화공연	문화공연 소개 등, 군산새만금마라톤 도로통제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5. 04. 제336호 발행일 2025.3.25.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협력과
편집인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미디어홍보계장 김현정, 주무관 김미진
군산시 시정소식지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읽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군산시 공보협력과(☎063-454-2092)로 문의 바랍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은 온라인 (<https://www.gunsan.go.kr/main/m151>)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군산, 서해안 의료중심지로 도약하다.



전북대병원 메인조감도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첫 삽, 서해안 의료허브로의 신호탄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2025년 2월 19일 군산시 사정동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은 군산이 서해안 의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울렸다. 2028년 10월 문을 열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을 넘어 장항과 서천 등 충남 서남북권 지역까지 지역 의료 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화된 전문 진료를 통한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은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군산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대형병원이 부족해 치료를 위해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의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500병상을 갖춘 최첨단 의료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심뇌혈관센터, 소화기 센터, 응급의료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단순 질환자가 아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특화된 전문진료를 통해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의료시설 확장을 넘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연결고리 역할

향후 40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군산전북대병원은 의료시설의 확장을 넘어 의료진 및 관련 인력 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가 강화되고, 대학병원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이 더해져 의료허브로, 서해안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로 군산이 명실상부한 의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6년간의 시련을 이겨낸 군산전북대병원과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성사된 만큼 군산의 건강과 행복을 피워내기를 염원해본다.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하나로!

관할권 싸움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의 항만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에
군산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비안도

두리도

무녀도



새만금 신항은 토사의 매몰 및 퇴적으로 인한 군산항의 기능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5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일체화되어 군산시 관할 해역에 건설되는 항만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군산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이 살길 단 하나의 항구, One-Port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세계인이 가고 싶은, K-관광섬 방축도

군산의 말도·명도·방축도가 관광과 K-컬처를 융합하여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특화하는 K-관광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군산 섬의 매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산될 수 있다는 반증이지요.

이중 고군산군도의 방과제인 방축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방축도 이야기

고군산군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섬은, 면적 2,167km², 해안선 길이 6.5km로 북서풍을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와서 '방축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방축꼬미', '쌍꼬미', '모래꼬미'라고도 불려요. 섬의 형태는 거북이를 닮았고, 모래미, 쌍꼬미, 밤도라는 3개의 마을이 존재합니다.

👁️ 방축도 역사와 문화

선착장 옆에 벼단을 쌓아놓은 노적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바위산인 노적봉 위에 온갖 풍상을 겪으며 자란 소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지요. 소나무의 세월이 무색하게 방축도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존재한 남방식 고인돌과 조개무지는 고고학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고요, 고대 해상왕 장보고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할 무렵 당나라 상인들이 표류하여 이 섬에 상륙하면서 주민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니까요.

방축도 볼거리

오랜 역사를 드러내듯 수억 년간의 지질이 빚어낸 기암괴석을 비롯하여 파도가 넘실거리는 드넓은 바다, 동백숲 길과 해변 산책로를 걷다 보면 방축도만의 섬 여행 절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표 명소를 꼽으면 출렁다리, 독립문바위, 시루떡바위, 인어상 등이 있지요.

출렁다리

2021년 10월 개통된 방축도의 출렁다리는 방축도와 명도 사이를 연결하는 83m 길이의 인도교로, 고군산군도 해양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고군산군도의 명물인 독립문바위와 시루떡 바위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로, 트레킹과 산책로가 어우러져 편안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독립문바위

방축도 서쪽 끝에 있는 해안침식 지형으로 파도형 침식을 받아서 아치형 지형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구멍 바위로 불렸다가 독립문 같아서 독립문바위라고 합니다. 물이 빠지면 바위 아래 드러나 직접 다가갈 수 있으며 밀물 때는 커다란 구멍 사이로 배 한 척이 지나갈 정도의 규모와 형태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특히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와 가마우지를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시루떡바위

과거 조산운동(판과 판 사이의 충돌로 인한 지각변동)과 같은 산맥을 만드는 운동과 같은 큰 규모의 횡압력으로 만들어진 바위입니다. 두꺼운 책장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고서를 쌓아놓은 듯한 모습과 닮았다 하여 책 바위, 시루떡 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인어상

선착장 근처에는 거북 바위 전설을 간직한 인어공주상이 떠나는 이들을 배웅합니다. 인어공주를 사랑한 거북이의 슬픈 사랑을 달님이 인어공주를 항상 지켜볼 수 있도록 거북 모양의 바위에 하얀 인어공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독특한 자연과 함께 떠나는 방축도 트레킹 코스

방축도는 자연 속에서 트레킹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완공과 함께 명품 트레킹 코스가 정비되면 신선이 되어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 들 만큼 대한민국 섬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시작하여 마을 안길을 따라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천상의 길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레킹 코스 1 (4km, 1시간 30분)

선착장 → 소망교회 → 샘끄미해변 → 모래미해변 → 뒷장불 전망대 → 독립문바위 → 출렁다리 → 광대도 전망대 → 출렁다리 → 소망교회 → 선착장산 → 달님정 → 인어상

트레킹 코스 2 (6km, 2시간 30분)

선착장 → 소망교회 → 뒷장불 전망대 → 독립문바위 → 출렁다리 → 광대도 전망대 → 출렁다리 → 뒷장불 전망대 → 방축큰산 → 달님정 → 인어상

대한민국 대표하는 해양관광 명소, 방축도

현재 방축도는 해상 인도교 연결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를 잇는 총 14km의 트레킹 코스가 개발되어, 방축도는 고군산군도의 해양관광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트레킹, 자연경관, 그리고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방축도에 곧 완공될 인도교가 더해지면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방축도의 트레킹 코스를 따라 아름다운 섬 여행을 떠나보세요.

방축도 가는길

[여객선 안내] 예매 : 가보고 싶은 섬 군산여객터미널 (<https://island.haewoon.co.kr>)

문의 : 063-464-4614(장자도 매표소)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주)지방 조권능 대표

도시도 삶을 산다. 탄생, 성장, 쇠락, 소멸의 생애주기를 통해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간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던 추억이 새겨진 장소는 대를 이어 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지역의 흔적과 자취는 옛이야기로 각색되어 새로운 곳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공간이 품고 있는 기억은 이야기가 되어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 스토리를 통해 공간과 사람을 이어 도시를 재창조하는 로컬 브랜딩의 힘이다.

군산을 브랜딩하는 이가 있다. (주)지방의 조권능 대표. 군산 토박이이기에 지역 정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홍대 거리가 문화로 입혀지는 2000년대 초반 그곳에 있었기에 지역 브랜딩에 열정을 쏟는 군산의 인이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그를 만나 '군산 스토리'를 나누어 보았다.

운영하고 있는 (주)지방이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고 소개되는데 단어가 생소합니다.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 기획사, 동네기획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지역관리회사(Area Management Company)예요.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처럼 일정한 권역 안에 자리한 크리에이터 등과 함께 계획과 설계, 창업자 매칭, 개발 이후 지속적 운영 지원 등을 우리 민간 스스로가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군산에 오시게 된 동기와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홍대 근처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홍대 거리에 변혁이 일어난 시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신촌 등지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홍대의 몇 개 클럽을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변화의 중심이 아티스트라는 걸 주목했습니다. 아트 카페나 소규모 공연 전시가 동네를 변화시켰죠. 아, 예술이 지역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사는 군산도 채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군산에서 주로 하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복동, 영화타운, 술익는마을 등이 있죠. 슬럼화되어 있는 원도심에 문화예술을 불어넣고 비즈니스를 가미하여 생기를 돌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개복동은 초창기에 활동했던 지역으로 제가 군산에 다시 내려와 차렸던 '나는섬'이 있었던 곳이죠. 작업실 겸 카페인 이곳을 중심으로 '개복인'이라는 예술가 커뮤니티와 교류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시도했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방향을 하는 중에 '예술촌'이라는 공간이 생겼고, 이곳에서 예술인들과 다시 모이고, 그간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현재 ㈜지방을 경영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오래된 군산의 사설 시장을 리노베이션한 영화타운을 꼽을 수 있겠네요. 시와 협업하여 발길이 끊긴 영화시장에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입점하여 하나의 동네를 조성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주 소개되어 주말 저녁이면 젊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몇몇 가게는 만석이 되어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매출이 상당하죠.

술익는 마을이라는 프로젝트는 군산의 로컬 자원 중에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영역이 양조산업이라고 생각해서 기획했습니다. 군산은 예로부터 쌀이 우수하고, 항구도시로 물자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술이 풍부한 곳이죠. 특히나 국민 청주로 이름이 날린 백화수복을 만든 기업, 백화양조가 이 도시에서 탄생했습니다. 근대부터 제대로 청주를 빚는 군산엔 술의 원료, 제조기술, 음주 문화 등 술과 관련한 자원이 많아요. 이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고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마을 12곳으로 지정되기는 등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군산은 술이다' 하실 정도로 지역의 술과 양조 문화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군산은 개항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먼저 들어온 도시입니다.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에 익숙한

도시죠. 빵지순례, 짬뽕투어를 위해서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줄을 이을 정도로 빵과 짬뽕의 성지가 된 것도 도시의 개방성이 한 몫을 한 겁니다. 이제는 빵, 짬뽕에 이어 술의 도시로서도 지역을 브랜딩해야 합니다.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던 술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발산하게 하고 싶어요. 군산의 우수한 쌀과 물로 술을 빚고, 이를 지역 특산물, 디저트, 화장품을 비롯하여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유입된 제3의 문화를 본연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나만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군산의 개방성과 유연성, 그리고 다문화적인 면모를 술을 통해 보여주려고 해요. '전통(tradition) 위에 정통(originality)을 세운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군산양조장인 흑화양조도 이러한 맥락이죠.

군산에 대해 많이 고민하신 대표님의 군산과 군산 사람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군산은 고군산군도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군산에는 63개의 섬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섬들이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무리로 이루어 빛을 내고 있지요. 역사의 파도에 밀려온 군산 사람들과 비슷하죠. 항구도시인 군산은 개항기, 6·25전쟁 등을 겪으며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룬 도시입니다. 하나가 아닌 듯하면서 하나인 곳이 군산이죠.

군산은 섬과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섬은 육지와 동떨어진 독자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각각의 섬들이 군도(群島)를 이루면 하나가 됩니다. 각각의 다른 무늬들이 모여 하나의 조합을 만드는 모습이 바로 군산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차린 작업공간인 '나는섬'도 이런 뜻을 담았죠. 그래서 근대도시로만 표현되는 군산을 다문화와 개방성의 상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정체성을 '문화적 개방성'으로 바라보는 조권능 대표. 근대에서 근대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콜라주 되면서 만들어진 도시로 시야를 확장해야 군산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개항 이후 조성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몰린 외지인들과의 교류로 문화적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와도 거리낌이 없다. 이런 개방성이 군산의 매력이자 자원이라고 한다.

군산을 술, 군주(群主, 무리의 주인), 바(BAR)다 등으로 표현하는 그의 언어에서 지역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엿보인다. 사람은 각각의 '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 무늬들이 한데 모여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의 말이 땀땀하다. 앞으로 그가 창조하는 공간에 자신만의 무늬를 어떻게 새겨낼지, 군산만의 무늬로 어떤 브랜딩을 만들어 낼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농가와 상생하며 고객과 소통하다 홍윤베이커리 홍동수 명장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한 빵 개발에 매진하는 군산의 사람, 홍동수 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제빵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A 1984년 제가 17살 때 중학교 졸업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했죠.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저도 공부보다는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제 천직이 되었네요.

Q 40년 동안 한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제빵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제빵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눈앞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우리 농산물로 만든 빵이 원가 부담이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고객들이 "정말 맛있다"라며 다시 찾아주시는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해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Q 명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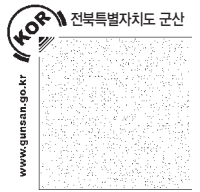
A 저희 슬로건은 "홍윤빵을 드시면 우리 농민도 행복해집니다."예요. 저희가 만드는 빵의 주재료는 100% 우리 농산물입니다. 수입 밀가루가 아닌, 우리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덜고, 소비자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빵을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Q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실까요?

A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더 많은 분께 우리 농산물로 만든 빵의 진정한 맛을 알리는 것이 저희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군산시 명장을 소개합니다! 군산시 명장이란 우리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장기간 산업현장에 종사하며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군산시 명장 조례에 의해 군산시장이 매년 선정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선정된 군산시 명장을 독자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454-4362**



오징어 중에 갑(甲), 갑오징어의 주산지 군산



군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선한 해산물이죠~! 그중에서도 제철 갑오징어는 꼭 한번 맛봐야 하는 별미입니다. 오징어류 중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갑오징어는 타우린, DHA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며 저지방 고단백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의 갑오징어는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올라 쫄깃한 식감으로 입맛을 돋워줍니다.

군산 갑오징어, 무엇이 다를까요?

갑오징어는 두족류에 속하는 수산동물로 단단한 갑이 있어, '갑오징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일반 오징어보다 몸통이 두툽하고 탄력이 좋아 씹는 맛이 일품인데요. 특히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갑오징어는 청정 해역에서 자라 더욱 신선하고 풍미가 뛰어나죠. 회로 먹어도 좋고, 구워만 먹어도 환상적인 맛을 자랑해요. 무엇보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는 게 특징이에요.

갑오징어 주산지인 군산은 2024년 ~ 2028년까지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란장과 인공 해조장, 종자 방류 등 시설을 확충하여 맛있는 갑오징어의 품질과 생산량 증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오징어가 보리밥이면 갑오징어는 쌀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군산의 갑오징어가 더 큰 명성을 떨칠 날이 머지않았네요.

갑오징어, 이렇게 즐겨보세요!

갑오징어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해망동에 위치한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 방문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갓 잡아 올린 신선한 갑오징어를 직접 고를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손질해 주는 식당도 많습니다. 쉽게 나른해지는 봄, 그리고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며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싱싱한 갑오징어를 먹고, 활력도 높이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갑오징어 숙회 만드는 방법

재료 준비 갑오징어, 초고추장

1. 갑오징어 손질을 합니다. 몸통을 반으로 갈라서 다리와 분리해 주세요.
2. 다리에서 내장을 분리하고 갑오징어의 눈과 입도 제거해 줍니다.
3. 몸통에 있는 갑오징어의 뼈를 분리해 주세요.
4. 껍질을 벗기고 싶으신 분은 껍질을 벗겨 준 후 깨끗이 씻어 주세요.
5. 끓는 물에 갑오징어를 넣고 데쳐주세요. 데치는 시간은 물이 끓은 후 오징어를 넣고 2분 이내입니다.
6. 데친 오징어는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7. 데친 오징어를 먹기 좋게 썰어 준 후 초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저기... 흑시... 그거 아세요?

군산시 학예연구사
나병호



고대부터 바다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군산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간척지 사업으로 육지화된 새만금, 옥서, 옥구 등과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등 섬을 통해 해양 문물의 교류와 채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곳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군산에는 다양한 해양 문화와 유산이 존재하는데 그 중 초마면(짬뽕), 된장찌개, 칼국수 등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의 감칠맛을 책임지고, 조개찜, 조개구이, 봉골레 파스타 등 다양한 음식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조개, 이 조개와 관련된 재미있는 유산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개는 군산을 대표하는 초마면(짬뽕), 칼국수 등 다양한 군산 요리의 중요 재료 중 하나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군산 음식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장 유산을 보여주는 조개무덤을 구축하고 지켜온 구성물입니다.

조개무덤, 일명 패총은 인류가 먹고 버린 조개껍질을 모아둔 곳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표현으로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고대에는 지금처럼 쓰레기를 모아 주거지와 먼 곳에 버릴 수 없었기에 주거지 인근에 조개를 버렸습니다. 이에 조개무덤의 수는 그 지역에 많은 수의 주거지, 즉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장소인 조개무덤이 전국에 600여 곳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200여 곳이 우리의 선조가 살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군산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산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조개무덤이 발견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산은 바다를 접하고, 금강과 만경강이 흐르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역 간 문물 교류의 장이었던 물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바다가 내어주는 풍부한 해양생물자원과 기름진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물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군산 지역은 고대부터 많은 수의 사람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식량과 물적 자원이 많았으며, 물길을 통한 문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해양 문물 교류의 중심지로 많은 조개무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



2



3

1 비응도패총 노지 2 비응도패총 전경
3 비응도패총 즐문토기

(출처 : 전북대학교박물관)



군산의 조개무덤은 신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다양한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시대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곳도 있지만 같은 지역을 시대에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 조개무덤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군산 비응도 조개무덤입니다. 비응도 조개무덤은 신석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만들어진 위치에 따라 신석기 시대 즐문토기·석기·어망추 등이 확인되었고,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적색마연토기·석촉·석검 등이 출토되었으며, 인골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유물 중 토기의 경우 다양한 문양의 토기가 확인되어 군산을 통해 한반도의 문화가 교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또 다른 유적으로는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노래섬 조개무지입니다. 노래섬 조개무지는 신석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만들어진 조개무덤으로 빗살문토기·무문토기·타날문토기 등 토기와 석부·석촉·석검·어망추 등의 석기, 화살촉·뉘싯바늘 등 골각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규모가 작은 섬의 환경과 발견 유물을 통해 정착 생활보다는 장기간 계절에 따라 사용되었던 생활근거지로 확인되어 역사적 의미가 큰 유적입니다.

이 밖에도 군산에서 확인된 조개무덤들은 저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지면 한계상 이만 설명을 줄이고자 합니다.

군산의 조개무덤은 서해 해양 문물의 중심지인 군산의 역사와 대한민국 물류 역사의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산시는 언제나 군산다움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4 노래섬 전경
- 5 노래섬 패총 불탄 패각층
- 6 노래섬 패총 패각퇴적상태
(출처 :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7 둔덕리 패총 출토 미소패류
- 8 둔덕리 패총 출토 어골, 수골, 조골
- 9 둔덕리 패총 출토 패류
(출처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LOCAL MARKET

영화 TOWN

“라떼는 말이야~”가 희한 곳 영화타운

폰대가 인싸가 되는 곳
춘스러움이 트렌디한 곳
베이비부머와 MZ가 함께 즐기는 곳

힙트로이 중심 영화타운입니다.

[힙트로] Hip : 최신 유행의 사정에 밝은, 앞서 있는 + Retro : 복고주의 합성어 콕아사션

봄바람이 유난인 근대 밤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잔잔한 조명이 그윽하게 깔린 골목이 보여요
불빛을 따라가면 좀전의 한산했던 거리는 사라지고
즐비한 바와 카페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골목길 사이로
‘군산은 BAR(바)다’가 일렁입니다.

1930년대부터 있었던 영화시장에
크리에이터(예술가 + 소상공인)의 열정과
문화예술, 지역의 감성이 리터칭되어
영화타운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3대천왕에 소개되었던 안젤라 분식과 함께
60년 넘은 야채가게, 슈퍼도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어
어르신들도 추억을 따라 이 곳에 온답니다.

영화시장, 아니 영화타운에서
‘라떼는 말야’에 귀 기울여 보세요



럭키마켓

미군들이 영화시장을 자주 찾았던
과거를 되살린 미국 음식점



돈키호테

타파스바,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스페인 요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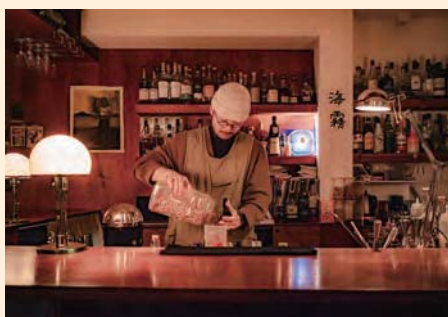
야끼끼

오꼬노미야끼 전문점. 일본 사케와
맥주,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주점



수복

전통주&오징어. 쌀익는 향기를 전하는
전통주를 다양하게 맛보는 바



해무

커스텀 칵테일바. ‘안개 속에
우리들만 보인다’는 뜻의 감성 핫플



군:KUN

군산 생주를 맛볼 수 있는
현대식 모던 주막



이제는 걸어볼까? 군산의 명품 걷기 명소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맨발 걷기 명소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산에서도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 걷기길이 조성되었습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맨발 걷기 코스를 소개합니다.

자연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군산 맨발걷기

군산에는 자연과 하나 되어 걷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코스들이 있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발바닥이 부드럽게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죠. 마치 자연이 주는 건강마사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의 온기가 전해지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자연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봄과 가을이 되면 맨발 걷기의 매력은 더욱 커집니다. 봄에는 싱그러운 새싹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길을 수놓아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가을에는 황금빛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 냅니다.

자연이 주는 감촉과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힐링되는 기분이 들죠. 또한, 군산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월명공원에도 새로운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걷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예정이니 기대해보세요!

호수 따라 힐링한 걸음, 은파 황톳길 산책

은파호수공원은 군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식 공간 중 하나로, 물빛다리와 별빛다리, 수변산책로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약 500m의 황톳길이 조성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챙기고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죠.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기분까지 상쾌해지고, 계절마다 변하는 풍경 덕분에 걸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즐기는, 수송동 7호 완충녹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하며 맨발 걷기를 조성하고 싶다면 **수송동 7호 완충녹지**를 추천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703m의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황토와 마사토를 섞어 포장한 덕분에 발에 닿는 감촉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맨발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촉촉한 흙의 느낌이 전해져서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죠.



바다를 뱃삼아 걷는, 금강공원 맨발길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 바로 **금강공원 맨발길**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소나무 숲길 사이로 조성된 1.07km 건식 맨발 걷기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중간중간 쉼터도 마련되어 있어서 잠시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힐링할 수도 있고요. 계절마다 피어나는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도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억새가 반겨주는, 청암산 억새길

군산 호수를 따라 펼쳐진 **청암산 억새길**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맨발 걷기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400m 길이의 마사토 포장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밭이 장관을 이루면서, 마치 자연이 건네는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는 기분이 들죠. 또 산책길에는 경계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요.



생활정보 **톡톡**

궁금하지만 어떻게 물어볼지 몰랐던 생활정보
일상을 살다보면 유용한 생활정보
알아두면 아는척하기 좋은 생활정보
생활정보 톡톡에서 대신 알려드립니다.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도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 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생활정보 톡톡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생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유튜브 <http://www.youtube.com/@gunsansi>

영상으로 보는 군산

검색

군산의 행정소식, 지역명소, 축제 관광 등 군산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군산시가 전하는 생생하고 특별한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군산알짜배기
#군산사랑상품권캐시백
#군산사랑상품권 2025



#군산짬뽕
#춘장짬뽕
#군산짬뽕특화거리



#내안에청렴있다~~
#나부터청렴실천
#청렴한군산



#군산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김미더러브
#군산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

리porter 소식

군산시립합창단의 응원가 “엄마, 그녀의 계절”을 마주하다.

리porter 이유정

“당신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엄마, 그녀의 계절”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시간이 같을
수는 없지만, 공연을 통해 그녀의
계절, 혹은 그들의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희망을
노래하는 순간마다, 삶에 지쳐
놓쳐버렸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공연이 무르익어
갈수록, 많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앙코르 공연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성으로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되새기며, 삶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응원가를 들려준 군산시립합창단
의 진심 어린 공연에 감사합니다.



한밤중의 반가운 빛

리porter 강수현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늦은 시간
병원과 약국이 걱정되셨나요?
조촌동에 위치한 ‘키움 병원’이
2025년 3월 4일부터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을 운영합니다.
평일은 18시~23시, 주말과
공휴일은 9시~18시까지 문을
열니다. 또한, 심야에도 약을 살
수 있도록 ‘센트럴 약국’이 연중무휴
야간 운영합니다. 매일 밤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
운영을 합니다. 주간에는 평일
9시부터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 후
야간 운영을 합니다. 공휴일은
야간 운영(22시~1시)만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군산의 벚꽃명소, 월명체육관 경기장로

어린이리porter 윤채원

벚꽃이 피는 따스한 봄의 달,
4월이 되었습니다. 군산의
유명한 곳 중 하나인 은파호수
공원은 벚꽃이 피면 더
북적북적해집니다. 바로 아름다운
벚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은파호수 공원에 가려진 또 다른
벚꽃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월명체육관입니다. 월명체육관에서
금강 터널을 지나는 거리인
경기장로입니다. 그 거리는 제가
학원을 자주 오고 가며 많이
봤던 거리입니다. 도로 양옆에
벚나무가 많이 피어있어서
눈이 아름다워집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벚꽃을 보러 가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차를 타고 가며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2025년 행복콜버스 확대운행

리porter 김엘리

군산시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콜버스를 3월 4일부터
옥구·옥서면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8대에서 10대로 확대
되었으며, 회현·임피·서수면은
호출제, 대야면은 노선제+호출제
병행, 가력항은 하루 3회
운행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옥구·옥서면은 월~토 오전 7시
부터 오후 7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되며, 운행 대수는 2대
입니다. 이용 요금은 500원이며,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요금이
차감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 시간 한 시간
전까지 콜센터(☎ 063-467-9874)
로 예약하면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군산에서 울려 퍼지다

어린이리porter 박빛나

3월 1일 군산시에서 시민들의
힘찬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은 바로 3.1절 106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들
밝은 표정으로 힘차게 만세를
외쳤다. 이날 기념식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서 군산 이마트
근처까지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하는 3.5만세운동
재현행사와 3.1운동 기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3.5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 한강 이남, 호남
최초의 만세운동으로, 호남지역의
만세운동이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4월 5일은 무슨 날? 나무 심는 날!

어린이리porter 권하을

4월에는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식목일을 빼놓을
수 없죠! 식목일은 신라 문무왕
17년(4월 5일), 나무를 심은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심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공기를 맑게 하고, 산사태와
가뭄을 방지하며,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속에서 직접
나무를 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식목일에
작은 화분에 나무를 키워보려
합니다! 거창한 나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작은
식물부터 키우며 식목일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따스한 봄 햇살과 읽기 좋은 책

유아



오늘의 할 일

김동수 | 창비 | 2024

“기꺼이 오늘의 할 일을 하기”

묵묵히 자정작용 하는 자연을 물귀신으로 상징하여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일침을 명랑하게 풀어낸 그림책.

내 엉덩이는 내가 책임진다

강정연 | 다산어린이 | 2025

초등학교 입학할 친구들을 위한 홀로서기 동화책. 초록이는 과연 혼자서 볼 일을 마칠 수 있을까?



초등학생



아무리 놀려도 괜찮은 책

박티팔 | 곰세마리 | 2024

친구들이 똥똥하다고 놀려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소라에게, 엄마는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어느 날 문이 사라졌다

김은영 | 문학동네 | 2025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의 현관문과 창문이 모두 사라졌다?! 해리와 해수는 구조 될 수 있을까?



청소년



시한부

백은별 | 바른북스 | 2024

중학생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을 심도있게 다룬 책.

우울과 방황의 경계에 선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야기

성인



새들이 남쪽으로 가는 날

리사 리드센 | 북파머스 | 2024

사이가 좋지 않은 아들이 주인공 보의 반려견인 식스텐을 데려가려한다. 그는 삶의 여러 순간들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동안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보려한다.

친애하는 솔츠씨

박상현 | 여크로스 | 2024

오래된 편견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인류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배제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지에서 비롯되는지를 다양한 주제를 통해 보여준다.



도서관주간 행사 안내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

☞ 도서관주간이란, 매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독서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으로, 군산시 공공도서관에서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세일정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 참조)

도서관	작가강연 및 가족공연	체험프로그램
시립도서관	이광민 정신의학과 의사 · 강효미 동화작가 강연 및 블랙라이트 인형극 <종이아빠> 가족공연	아름다운 동화를 읽고 우드버닝 도마, 반짝반짝 스탠드 만들기
금강도서관	유진 작가의 그림책 1인극 공연 및 형사 박미옥 작가 강연	그림책 독서체험 프로그램, 손바느질 그림책 캐릭터 인형 만들기
늘푸른도서관	박규빈 동화작가 강연 및 종이회전 인형극	나만의 책도장 만들기
설림도서관	-	양말목 공예 및 동화요리, 펍아트 체험
산들도서관	이조호 동화작가 강연	감정요일 향수 만들기
공통	자료실 연계 프로그램 및 원화전시, 두배로 도서대출, 연체자 구제, 전자책 참여이벤트 등	

숲 속 책 한 마당

늘푸른도서관 인근 물사랑공원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숲 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북캠핑

- 기간 : 4. 12. ~ 5. 17.(매주 토)
- 시간 : (1차) 10:00~13:00 / (2차) 13:30~16:30
- 대상 : 가족단위 이용자(오전 · 오후 각 7팀)
- 내용 : 숲 속에서 즐기는 가족 북캠핑 (구성품 : 텐트, 폴딩박스, 매트, 보드게임, 만들기키트)

☞ 4월 체험 프로그램

- 숲 속 책놀이(초등1~3 대상)
- 신청문의 : 063-454-5982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 늘푸른도서관에서는 0세~미취학 영 · 유아를 대상으로 2025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를 시작합니다.

- 기 간 : 4. 12. (토) ~ 꾸러미 소진 시
- 신청방법 : 늘푸른도서관 유아자료실 현장방문 (※ 읍 · 면 지역 택배 발송 가능)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자녀확인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문의 : 063-454-5983



봄철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대비하세요!

꽃가루 알레르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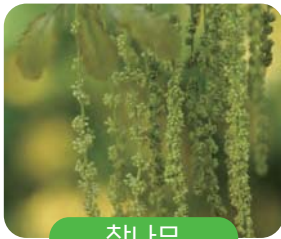
꽃가루 알레르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가 눈이나 코로 들어왔을 때, 면역시스템이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무는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삼나무가 있으며, 꽃가루는 4~6월 초까지, 제주도에서는 2~4월 초까지 공기 중에 날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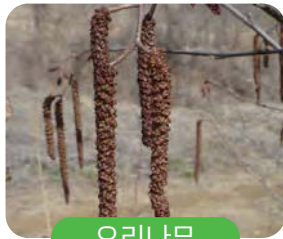
알레르기질환을 일으키는 꽃가루는 작고 가벼우면서 건조하여 바람이 꽃가루를 옮깁니다.

대표적인 봄꽃인 개나리, 진달래, 벚꽃은 나비나 벌과 같은 곤충이 꽃가루를 옮기므로 대부분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반응

꽃가루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감을 줄 수 있지만, 효과적인 관리와 치료로 증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맑은 콧물
- 코막힘
- 재채기
- 눈, 코, 입, 귀의 가려움
- 눈의 충혈과 눈물
- 피로감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과 관리

- 야외 활동 전에 꽃가루농도 예보를 확인하여,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여 꽃가루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하세요.
- 외출할 때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꽃가루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세요.
- 집에 돌아온 후에는 옷을 털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
-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 경우, 알레르기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지금 우리 동네는”

나포면,

'나포면민의 날' 기념행사성황리 개최!

3월 1일, 나포게이트볼장에서 개청 111주년을 기념하는 '면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나포면민의날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300여 명의 면민이 참여했다. 행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모범 면민 표창, 기념사, 축사, 면민 노래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나운1동,

나운상가번영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전달

3월 11일, 나운상가번영회(회장 김영석)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나운상가 번영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이 성금은 나운1동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옥도면,

화재 취약 가구에 투척용 소화기 지원

옥도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나기운, 공공위원장 전재언)는 지난 3월 4일, 화재에 취약한 20가구에 투척용 소화기를 전달했다. 협의체는 가정 내 소화기 소화가 비치되지 않은 세대를 직접 찾아가,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소화기를 지원했다.



임피면,

정성을 담아 찾아가는 밑반찬 나눔배달

임피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금자·김대권)는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20가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매월 밑반찬을 지원한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군산시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명근



그의 서거 50주년을 기리며

20세기 러시아(구소련)를 대표하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났다. 서거 50주년은 작곡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군산시립교향악단도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가지며 그의 10번 교향곡을 소개했다.

베토벤이 만들어 놓은 교향곡 9번의 저주를 극복한 작곡가

음악의 세계에서 아홉 번째 교향곡에 저주가 깃들여 있다는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다. 베토벤이 교향곡 9번 '합창'을 남기고 사망한 이후 9번의 교향곡을 쓴 작곡가는 곧 세상을 떠날 운명이라는 괴담이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슈베르트, 드보르작, 부르크너, 말러 등 많은 작곡자들이 교향곡 9번에서 작품활동을 멈추게 된다. 말러는 9번째 교향곡을 작곡하고는 번호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여 죽음을 피해 가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 10번째로 작곡한 곡에 9번의 타이틀을 부여한 이후, 저주를 증명이라도 하듯 생을 마감했다. 이와 다르게 총 15편의 교향곡을 완성한 쇼스타코비치는 9번의 저주를 벗어난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쇼스타코비치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 10번

하지만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한 9번 교향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는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거의 소품에 가까운 소규모 곡을 만들어버렸기에 쇼스타코비치(그는 그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반항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는 그 전보다 더 심한 검열과 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후 제10번 교향곡이 1953년 가을에 완성되었다.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작품세계를 억압해온 스탈린 죽음 직후 탄생한 곡이었기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본능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도 역시 '증언'이라는 회고록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는 10번 교향곡에서 음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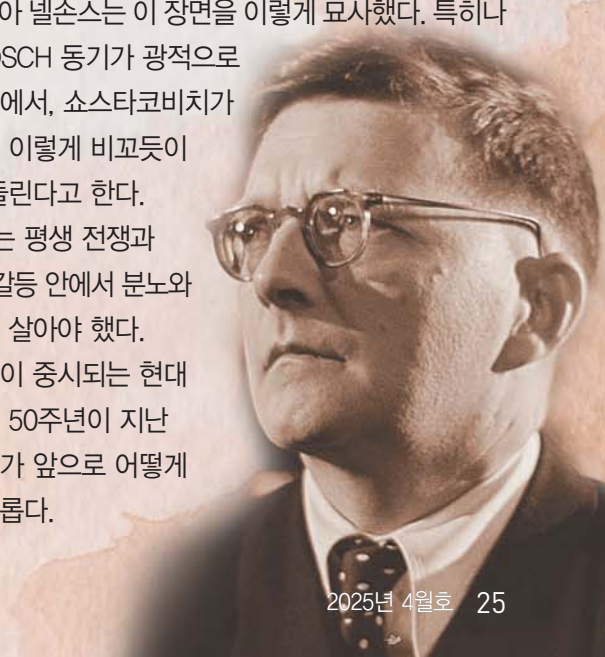
스탈린을 묘사했다. 스탈린이 죽고 나서 바로 썼지만 아무도 무엇에 대한 음악인지 추측하지 못했다. 이 작품은 스탈린과 그의 시대에 대한 곡이다."

악장에 자신과 연인의 이니셜을 새겨놓다.

이 곡은 전형적인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반 두 악장에 쇼스타코비치 자신의 이름 철자(Dmitri Shostakovich)에서 따온 'D-S-C-H' 동기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걸로 알려진 제자 엘미라(Elmira)를 이니셜로 한 동기가 호른 악기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 역시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그 둘에 동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음악적인 흐름은 참으로 재미있다. 4개 악장 전반의 흐름과 자신의 이니셜은 단 전개는 공산주의에 순응하거나 좌절하는 당원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한 예술가의 삶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시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본다. 마치 스탈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본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도 들리고, 스탈린의 무시무시한 잔상을 스스로 이겨내고픈 의지도 엿보인다.

죽은 스탈린에 대한 외침, "당신은 죽었지만 난 살아있어! 난 아직도 여기 있다고!"

지휘자 안드리아 넬손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특히나 그의 이름인 DSCH 동기가 광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서, 쇼스타코비치가 스탈린을 향해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는 것이 들린다고 한다. 쇼스타코비치는 평생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갈등 안에서 분노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다. 국가보다 개인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서거 50주년이 지난 그의 작품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흥미롭다.



군산항,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범시민 쫓기대회

군산시의회, 군산시민 3천명이 참여하는 쫓기대회 참가하여 군산새만금 신항 지키기 나서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 일원에서 열린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위한 범시민 쫓기대회’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쫓기 대회는 전북서부항운노조, 군산항만발전협의회, 어촌계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러 단체를 포함 군산시민 약 3,0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군산시의회는 이번 쫓기대회 현장에서 「군산새만금 신항의 군산항 통합 운영 및 부당한 강탈 시도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 항의 기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목적의 항만으로, 역사적·지리적·기능적으로 군산항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 위원회」에서 도출된 신항만 운영 방식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도의 공식 의견으로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항의 무역항 지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에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 송미숙 행정 복지위원장, 김영일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우종삼 부위원장 등이 식발에 참여하며 군산시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군산새만금 신항은 우리 군산의 미래이자, 항구도시 군산의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정부가 군산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시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군산시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건의안·결의안을 소개합니다

이한세 의원 대표발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

이한세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폐를 촉구했다. 정부에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전면 재검토 ▲ 정책 책임의 지자체·농민 전가 금지 ▲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 및 국가 차원의 생산·재고 관리 강화 ▲ 2025년부터 의무 수입량(40만 8,700톤) 감축 및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 촉구」 건의안

설경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 신속한 피해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 군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

김경식 의원은 군산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 정부·한전의 전력수급계획 폐기 및 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 전력 생산지 인근 기업 이주 및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 송전선로 지중화·해상 연결 등 환경보호 대책 마련 ▲ 주민 의견 반영 및 공정한 절차 수립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 대표발의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 도입 촉구」 건의안

김경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 활주로를 최소 3,200m 이상 연장 ▲ 공항 연계교통망 신설 ▲ 활주로 이탈 방지시설(EMAS) 도입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지역 교통안전과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한 무인교통 단속장비 운영 이관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해 교통안전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영상단속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서동완 의원은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저출생 대책 강화를 위해 ▲ 도·시군 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 인구정책 관련 자치법규 검토 및 실효성 확보 ▲ 두 자녀 이상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녀 지원 정책 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요구했다.



군산시의
주요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혁신 성과 창출 기여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창의적 행정을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혁신역량 ▲현장 중심 소통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행정 효율화 등을 주요 항목으로 진행됐다. 군산시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 ▲'시장이 찾아가는 열린 특앤톡' ▲모바일 결재 시스템 도입 등으로 행정 혁신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고 지역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 기획예산과 454-2305



군산시,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나선다!

군산시, 핵융합 플라즈마기술 연구소와 업무협약

군산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플라즈마 스쿨'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실험·체험 중심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미래 에너지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중학생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고등학생 심화 과정도 추가된다. ☎ 교육지원과 454-2584



연중무휴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운영

군산시 키움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가 2월 27일 키움병원과 협약을 맺고 3월 4일부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 야간 및 휴일 소아 환자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평일 오후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심야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소아 환자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건행정과 454-4932

2025년 군산형 유망강소기업·강소기업 기업 모집

2025년 3월 7일~4월 7일 (린 달간)

<p>지원내역</p> <p>유망강소기업 3개사 연 5천만원 / 3년간 <small>*상세 내용 모집 공고문 참조</small></p> <p>강소기업 1개사 3천만원 / 1년간 <small>*유망강소 기업 대상</small></p>	<p>참여 대상</p> <p>군산시 소재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p> <p>신청방법</p> <p>군산시 / 전북산학융합원 홈페이지 공고문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방문접수</p> <p>문의 및 문의처</p> <p>전북산학융합원 www.jiuc.or.kr E-mail: seongho3707@jiuc.or.kr Tel. 063-472-2823</p>
---	--

지역산업을 이끌 2025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모집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강소기업 발굴

군산시가 지역 경제를 선도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을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군산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창업 3년 이상, 근로자 10명 이상, 매출 600억 원 미만의 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체다. 선정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금(강소기업 3,000만 원, 유망 강소기업 5,0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지원(최대 4%) 혜택이 제공된다. ☎ 신성창업과 454-2745



INFO BOX

군산시민에게
유익한정보를
소개합니다.

2025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 5. 16.(금)까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도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자
- 지원단가**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30만원
- 지원요건** 주소 및 농업인 조건 충족기간 변경 (당초 2년 → 변경 1년)
- ☎ 농업정책과 454-2844

2025년 군산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지원

- 신청기간** 2025. 3. ~ 1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거주지 상관없이 18~39세의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면접자
- 대여품목** 남/여 면접 정장, 코디 물품 (자켓, 치마, 바지, 셔츠, 블라우스 등)
- 구비서류** 면접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군산시 청년들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인구대응담당관 454-438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소득기준** · 청년(만18~39세)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행정과 454-4242

대국민 착한가격업소 추천공모

- 추천기간** 연중
※순은 기념메달 소진 시까지
- 추천업소**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청결상태 우수업소
- 추천방법**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접속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후 신청
※추천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3개 신규 지정 시 순은 기념메달 증정(선착순)
- ☎ 일자리경제과 454-2675



군산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내

- 허가일** 2025. 2. 26.
- 허가구역** 어청도, 직도 2개소
· 주요내용 외국인인 해당 지역 토지취득 시, 계약 전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군·구의 허가 필수
※위반 시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토지정보과 454-4082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위기알림 앱"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을 쉽고 빠르게!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알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도움요청 누가 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무원, 아·동장, 시위해자살 응급처치 등 신고의무자

요청 방법은?
· 앱 설치 후 도움 필요 대상, 위기상황 선택 및 도움요청 내용 입력 (이메일, 익명 도움요청 가능)

어떤 경우에 요청하나요?
· 나와 이웃이 생계곤란, 신체·정신건강, 고령 및 고독 등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

무엇을 도와주나요?
·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생계지원, 의료비, 주거지원 등)
· 건강관리서비스, 돌봄 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보건복지부 SSIS 인구사회복지정보원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No! 비용 No! 혜택 OK!

군산시민이면 자동가입!
(등록외국인포함)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콜센터
1522-3556

보장 항목
사망·후유장애 - 최대3천만원
자연재난, 사회재난, 폭발·화재, 농기계사고, 일반상해(교통상해사고 제외)
치료비 지원
스물손·실버손 교통사고 부상지원비, 야생동물피해 상해 사고 진단 위로금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2025년 달라진 항목
개울침·부도침 사고 진단비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으면 연 1회 한도 20만원 지급
강력범죄피해보상금
강력범죄(강도, 폭행, 살인 등) 피해 발생으로 사망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상해로 입었을 경우 500만원 지급



01 콩당보리 20주년, 두근두근 스무살 「제20회 군산콩당보리축제」

기간 2025. 4. 24(목) ~ 27(일)/ 10:00 ~ 18:00
 장소 군산시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군산시 공항로 371)
 상설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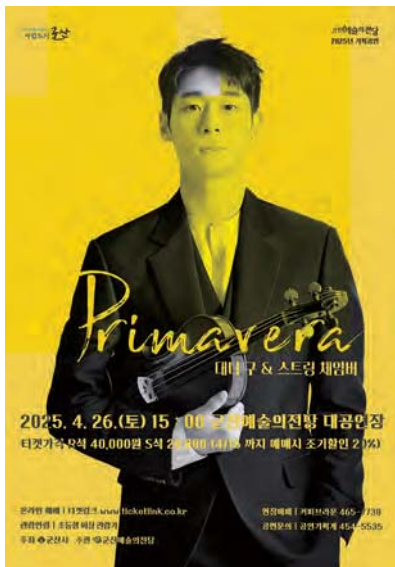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콩당 체험마당	씨앗 · 모종 심기, 수확체험, 원예체험, 농산물 활용 요리, 공예 체험
콩당 먹거리마당	보리비빔밥, 보리국수, 파전, 흥어무침 등 다양한 먹거리
콩당 판매마당	보리쌀, 검정쌀, 찹쌀, 검정콩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
콩당 플라마켓	군산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콩당 보리쉼터	하늘하늘 살아 숨 쉬는 보리밭 사이트길 걷기

☎ 농촌지원과 454-5233

02 시립교향악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

일시 2025. 4. 3(목) 19:30
 장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전석 5,000원
 *감면기준은 조례에 근거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56



03 대니구 & 스트링 체임버 Primav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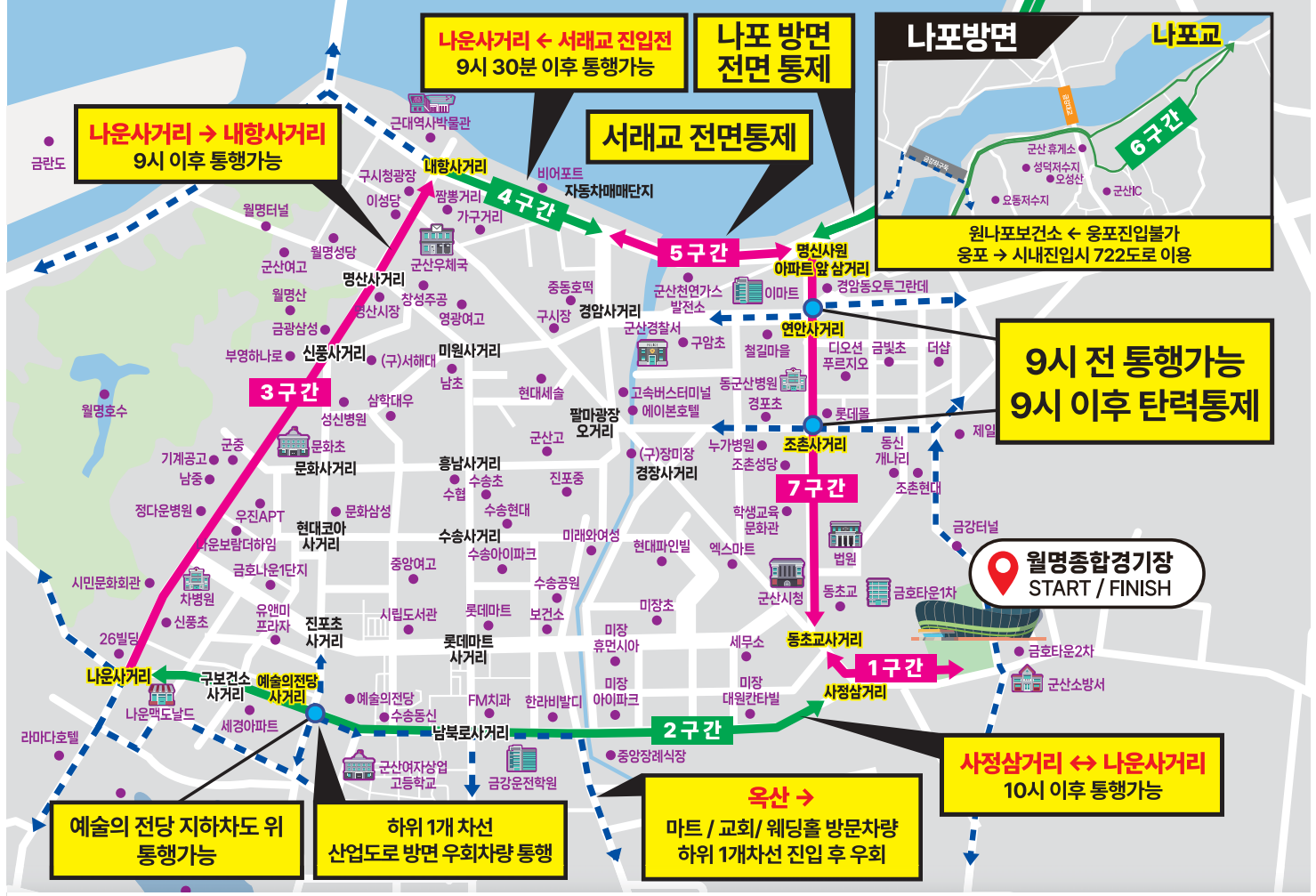
일시 2025. 4. 26(토) 15:00
 장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료 R석 4만원, A석 2만원

☎ 예술의전당관리과 454-5530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교통통제 4월 6일(일) 07:00~13:00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 교통통제 도로
- - - - 우회도로 및 통행 가능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4월 6일(일)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차량 운행 시 통제구간 및 시간을 확인하셔서
 우회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군산새만금마라톤 사무국 063)452-9425



구간	통제시간	해제시간	비고
1 구간 월명종합경기장 ~ 동초교사거리	07:00 ~	13:00	전면 통제
2 구간 사정삼거리 ~ 나운사거리	07:00 ~	10:00	전면 통제
3 구간 나운사거리 ~ 내항사거리	07:00 ~	09:00	부분 통제
4 구간 내항사거리 ~ 서래교	07:30 ~	09:30	부분 통제
5 구간 서래교 ~ 명신사원 아파트 앞 삼거리	07:30 ~	12:50	전면 통제
6 구간 명신사원 아파트 앞 삼거리 ~ 나포교	07:30 ~	12:50	전면 통제
7 구간 명신사원 아파트 앞 삼거리 ~ 동초교사거리	09:00 ~	13:00	단력 통제

전북,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갑니다



군산 **제20회** 콩당 보리 축제

The 20th GUNSAN BARLEY FESTIVAL

일시 | 2025. 4. 24(목) ~ 27일(일)

장소 |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 주최 | 미성농업발전협의회

• 주관 | 콩당보리축제추진위원회